

영월 누정의 건축 공간 특성 분석과 디지털 기반 문화콘텐츠 활용 방안 연구

Analysis of the Architectural Spatial Characteristics of Yeongwol Pavilions and Strategies for Utilizing Digital Cultural Content

윤병화¹

Byung-Hwa Yun¹

요 약

본 연구는 강원특별자치도 영월의 누정 9개소를 대상으로 역사문화적 의미와 건축공간적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 기반 문화콘텐츠 활용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는 문헌 조사와 현장조사를 통해 누정의 역사적 배경, 건축 형태, 공간 구성 및 기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영월 누정은 대부분 정면 3칸·측면 2칸의 -자형 평면과 사방 개방형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자연경관과의 시각적 연계성을 중시하는 공통된 특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팔작지붕, 원형기둥, 우물마루, 연등천장 등의 전통적인 건축요소가 확인되었고, 누정별 입지와 조성 배경에 따라 역사적 추모, 유교적 수양, 자연 감상 및 교류 등의 기능적 차이가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영월 누정의 지속 가능한 보존과 활용을 위해 디지털 아카이빙, 스토리텔링 기반 문화콘텐츠, AR·VR·XR을 활용한 실감형 콘텐츠 및 지역문화관광 연계 방안을 제안하였다. 영월 누정은 지역의 역사와 정신문화, 자연관이 결합된 문화유산으로서 디지털 기술과 문화콘텐츠를 접목할 경우 현대적 활용과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핵심어 : 영월 누정, 누정 건축, 문화유산, 디지털 아카이빙, 스토리텔링, 지역문화관광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historical and cultural significance and architectural spatial characteristics of nine pavilions in Yeongwol, Gangwon State, and to propose strategies for utilizing digital cultural content based on the findings. Literature review and field investigation were conducted to examine the historical backgrounds, architectural forms, spatial compositions, and functions of the pavilions. The results show that most Yeongwol pavilions feature a linear floor plan with three bays in the front and two bays on the side, along with an open-sided structure that emphasizes visual connections with the surrounding natural landscape. Traditional architectural elements, including hipped-and-gabled roofs, circular columns, wooden floors, and exposed ceiling structures, were commonly identified. Functional differences were also observed according to the location and historical background of each pavilion, including memorial functions, Confucian self-cultivation, appreciation of nature, and social interaction. Based on these findings,

¹ Institute for Educational Innovation, Wonkwang University, Iksan, Korea [Research Professor]
e-mail: hwa80sun@wku.ac.kr

Received(June 5, 2026), Review Result(1st: June 23, 2026), Accepted(August 7, 2026), Published(August 31, 2026)



© 2026 The Authors. Published by NCISS.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licensed under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 4.0 International License.
To view a copy of this license, visit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this study proposes digital archiving, storytelling-based cultural content, immersive content using AR, VR, and XR, and linkages with regional cultural tourism as strategies for the sustainable preservation and utilization of Yeongwol pavilions. As cultural heritage integrating local history, spiritual traditions, and perceptions of nature, Yeongwol pavilions can serve as valuable resources for contemporary utilization and regional cultural revitalization through the application of digital technologies and cultural content.

Keyword : Yeongwol Pavilions, Pavilion Architecture, Cultural Heritage, Digital Archiving, Storytelling, Cultural Tourism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누정(樓亭)은 일반적인 주거 공간이 아니라 자연을 감상하고 휴식을 취하며 시문(詩文)을 읊고 풍류를 즐기던 공간이었다. 이러한 공간적 특성으로 인해 산, 계곡, 강변, 호수, 바닷가 등 경관이 뛰어난 곳에 조성되었으며, 일부는 정사(精舍)로, 향교나 서원의 문루(門樓)로도 활용되었다. 누정은 삼국시대부터 고려와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조영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 영월의 누정을 중심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규모, 배치, 평면 형태, 구조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영월의 역사문화자산으로서 누정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향후 문화콘텐츠자원의 활용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1.2 선행연구 및 연구 방향

누정 관련 선행연구는 누정의 역사·문화적 기능, 조영 사상과 공간적 특성, 건축적 특성, 경관 및 장소성, 문학적 의미 등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이중 영월 누정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영월 누정 9개소의 건립 배경과 중수기(重修記) 등을 조사·정리한 자료가 있다 [1]. 그러나 개별 누정의 입지, 평면, 입면, 구조 및 공간 구성 등 건축적 특성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분석은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역사적 자료의 정리에 주안점을 두고 개별 누정의 건축적 특성과 지역 문화적 의미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현대적 활용 방안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영월 누정 문화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영월 누정의 건축적 특징과 문화적 의미를 규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역사적 누정 건축의 의미를 검토하였다. 둘째, 현장 조사를 통해 영월 누정의 구성 요소와 건축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셋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영월 누정을 디지털 기반 문화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제안하였다.

2. 누정의 이론적 의미

2.1 누정의 개념 및 기능

누정은 자연경관이 뛰어난 장소에서 사방을 조망할 수 있도록 마루를 높여 지은 다락식 건물로서 누각(樓閣)과 정자(亭子)를 아우르는 개념이다. 누정의 기원은 명확하지 않지만, 고대국가 형성기부터 존재하였던 망루나 고상식(高床式) 구조물이 그 원형으로 추정된다.

삼국시대에도 누정식 구조물이 존재했음을 문헌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삼국사기(三國史記)』에서는 왕대(王臺), 누각(樓閣), 사대(射臺), 임류각(臨流閣)과 망해루(望海樓) [2], 망해정(望海亭), 고루(鼓樓), 망은루(望恩樓), 월상루(月上樓) [3] 등이 기록되어 있다. 당시 궁궐 주변으로 누정을 건립했다는 증거이다.

누정의 본격적인 발달은 고려 시대다. 『고려사(高麗史)』에서는 “예종 8년 누각과 정자를 세우고 담장을 높이 두른 건축이 있었으며 [4], 11년에는 궁궐 동쪽에 이궁(離宮)을 조성하면서 태평정(太平亭), 관란정(觀瀾亭), 양이정(養怡亭), 양화정(養和亭) 등의 정자를 건립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5]. 이들 정자는 다양한 건축적 요소를 활용하여 독특한 건축미를 보여주었다. 공민왕 대에는 이현(泥峴)에 화원과 2층 팔각전(八角殿)을 조성하여 연회와 유희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였다 [6]. 특히 이규보는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 「사륜정기(四輪亭記)」를 통해 누정의 구조와 활용 방식을 상세히 소개하였다 [7].

이후 조선시대에는 유교 사상이 사회 전반에 정착되면서 누정이 개인의 수양과 학문 공간, 조상을 기리는 제의 공간, 공동체의 모임 공간 등 다기능적 공간으로 확대되었다. 이처럼 누정은 왕실과 관아에서 일정한 휴식처로 출발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대부들이 풍류를 즐기고 교양을 나누는 장소로 변하였다.

그러나 근대에는 많은 누정이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거나 방치되었고, 자연경관의 훼손과 관리의 부실로 인해 철거되거나 원래의 장소성 및 맥락을 상실한 채 이전되기도 하였다.

한편, 누정의 구체적인 기능은 다음과 같다 [8].

첫째, 조망의 기능이다. 누정의 가장 본질적인 기능은 자연경관을 바라보는 데 있다. 누정은 대부분 높은 지대에 위치하며, 사방이 개방된 마루 구조로 설계되어 시야 확보에 유리하다.

둘째, 휴식의 기능이다. 누정은 여행객이나 지역주민이 휴식을 취하는 장소로 활용되었다. 정자는 마을 공동체의 상징으로 기능했고, 누각은 관아나 객사에 부속되어 접객 및 풍류의 공간으로 운영되었다.

셋째, 문학 및 학문의 기능이다. 누정은 시인과 묵객(墨客)들이 모여 시문(詩文)을 창작하고 학문을 토론하던 장소였다. 일부 누정에는 한두 칸의 방을 마련하여 서재의 역할을 겸하였다.

넷째, 군사적 기능이다. 평상시에는 활쏘기 훈련장으로, 전시(戰時)에는 망루나 지휘소로 활용하였다. 특히, 성문 위에 있는 누각은 감시와 방어가 쉬운 전략적 요충지였다.

2.2 누정의 구조

누정의 주요 구성 요소는 기단, 초석, 기둥, 바닥, 천장, 공포, 지붕 등이 있다 [9].

기단은 누문 형식의 누각에서는 별도의 기단을 두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대신 초석 위에 직접 기둥을 세우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정자는 평탄한 지면이나 암반 위에 초석만 놓는 경우가 많았으며, 일부에서는 흙단이나 석단을 쌓아 안정성을 보완하기도 한다. 초석은 건립 장소와 용도에 따라 막돌초석이나 다듬돌초석을 혼용한다. 자연 지형에 있는 정자에는 막돌초석이, 궁궐이나 사대부 저택 내 정자에는 정제된 다듬돌초석이 주로 사용된다.

기둥은 원형 기둥이 기본이지만 정자의 경우 육모기둥이나 팔모기둥 등의 형식이 존재한다. 이런 형식은 구조적 안정성과 미적 요소를 동시에 고려한 결과이다. 바닥은 대부분 우물마루 형식이며, 천장은 가구를 노출한 연등천장이나 상부를 덮는 우물천장이 혼용된다. 천장 구조는 건축의 위계와 공간의 용도에 따라 달라진다.

공포는 누각의 경우 익공식을 사용해 지붕 하중을 분산시키는 구조를 이루고 있었고, 정자는 민도리 방식의 간결한 형태가 일반적이었다. 지붕은 홑처마와 겹처마 중 용도와 위계에 따라 선택된다. 팔작지붕이 일반적이나 도성이나 관아 건축에서는 우진각지붕이 채택되기도 한다. 다각형 평면의 정자에서는 사모지붕, 육모지붕, 팔모지붕 등 해당 형태에 맞는 지붕 구조가 적용된다. 지붕은 주로 기와로 덮으며, 궁궐이나 관아에서는 단청으로 장식하나, 사대부의 정자에서는 장식을 생략한 백골집 형태로 존재한다 [10].

3. 영월 누정의 건축공간 특성 분석

3.1 분포 및 분류

영월 누정을 역사적·문화적 성격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규루(子規樓), 배견루(拜鵑樓), 배견정(拜鵑亭), 관란정(觀瀾亭)은 단종과 관련된 역사적 사건과 주변 인물을 기리는 공간이다. 이곳은 단종의 유배와 죽음, 그리고 단종복위운동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충절의 역사를 상징한다. 자규루는 단종이 자신의 고뇌를 시로 읊은 「자규시(子規詩)」가 전해지는 장소로, 단종의 비애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배견루는 단종의 충신들을 제향하는 창절서원의 누각이고, 배견정은 사육신의 후손 박기정이 장릉에 세운 정자이며, 관란정은 생육신 원호를 추모하기 위해 건립된 정자이다. 이처럼 단종과 관련된 누정에는 조선시대 지식인들의 충(忠) 정신이 깃들어 있었다.

둘째, 요선정(邀仙亭)과 풍화루(風化樓)는 유교적 사상과 깊이 연관된 누정이다. 이곳은 휴식 공간을 넘어 학문을 닦고 덕을 기르는 수양의 공간이다. 요선정은 조선시대 문장가 양사언(楊士彦)이 영월군 주천면의 경치에 감명받아 ‘요선암(邀僊岩)’이라는 글자를 바위에 새긴 데서 유래하였으며, 숙종·영조·정조가 각각 편액(扁額)과 어제시(御製詩)를 하사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과 공간적 성격을 고려할 때 유교적 수양과 관련된 공간으로 볼 수 있다. 풍화루는 영월향교의 정문 누각으로, 유교 예의와 도덕을 교육·전파하던 교화의 장이었다.

셋째, 금강정(金剛亭), 빙허루(憑虛樓), 청허루(淸虛樓)는 전통 미의식과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하는 철학적 공간이었다. 금강정은 주변 경관에서 이름을 따왔으며, 자연을 감상하고 음풍농월(吟風弄月)을 즐기던 장소였다. 계족산과 태화산에 둘러싸인 이곳은 자연과 교감하며 심신을 정화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빙허루와 청허루는 도가사상과 연관된 공간이다. ‘빙허’는 허공에 기대는 삶의 태도, ‘청허’는 맑고 탐욕이 없는 마음에 기댄다는 뜻으로 자연과 하나가 되는 도가의 세계관을 상징하고 있다.

3.2 특성 및 기능

누정 건축의 특성 및 기능은 [표 1]과 같다.

[표 1] 영월 누정의 건축공간 특성 및 기능

[Table 1] Architectural Spatial Characteristics and Functions of Yeongwol Pavilions

구분	누정명	건립 시기	평면·층수	기단·기둥	공포·지붕	마루·천장·난간	단청·장식	주요 기능
1	자규루	세종 10년(1428)	3×2칸 —자형·2층 누각	막돌기단·원형주	초익공·홀처마 팔작기와	우물마루·연등천장+제형대공·계자난간	화려·3소로	관람·휴식·풍류·창작·강학·회의
2	배견루	숙종 11년(1685)	3×2칸 —자형·2층 문루	막돌기단·원형주	이익공·겹처마 팔작기와	우물마루·연등천장+제형대공·계자난간	중간·1소로	외삼문·누각, 서원 내 위계 공간
3	금강정	세종 10년(1428)	4×3칸 —자형·단층 정자	막돌기단·원형·방형주	초익공·겹처마 팔작기와	우물마루·연등천장+제형대공·평난간	화려·4소로	경관 감상·자연 조망
4	배견정	정조 16년(1792)	1×1칸 정사각·단층 정자	다듬돌기단·원형주	초익공·사모기와	우물마루·연등천장·평난간	간결·3소로	소규모 정자·경관 조망
5	풍화루	영월향교 창건(1398)	3×2칸 —자형·2층 문루	막돌기단·원형주	이익공·겹처마 팔작기와	우물마루·연등천장+제형대공·계자난간	화려·2소로	향교 내 위계 설정·유생 교류·수양
6	요선정	1913년	2×2칸 —자형·단층 정자	막돌기단·원형주	이익공·겹처마 팔작기와	우물마루·연등천장·평난간	화려·1소로	경관 조망·불상·탑과의 조화

7	청허루	조선시대	3×2칸 —자형·2 층 누각	다듬돌기단 ·원형주	이익공·겹쳐 마 팔작기와	우물마루·연등천장+ 제형대공·계자난간	백색 단청· 1소로	경관 감상·강학·풍류· 회합
8	빙허루	조선시대	3×2칸 —자형·2 층 누각	토단· 원형주	이익공·겹쳐 마 팔작기와	우물마루·연등천장+ 제형대공·계자난간	화려· 1소로	경관 조망·휴식·학문· 창작
9	관란정	헌종 11년(1845)	2×2칸 —자형·단 층 정자	토단· 원형주	이익공·겹쳐 마 팔작기와	우물마루·연등+우물 천장·평난간	화려 단청· 1소로	조망·수양·지역 문화 반영

첫째, 형태이다. 대부분의 누정은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의 —자형 평면이다. 전체 9개소 가운데 6개소(66.7%)가 여기에 해당한다. 반면, 금강정은 정면 4칸·측면 3칸의 대형 평면 구조이고, 배견정은 정면 1칸·측면 1칸의 소규모 정사각형 평면 구조이다. 층수 유형에서는 2층 누각 및 문루 형식이 5개소(55.6%), 단층 정자 형식이 4개소(44.4%)로 나타났다. 이는 영월 누정이 조망성과 상징성을 중시한 누각형 건축의 특성이 보이기 때문이다.

둘째, 구조이다. 기단 형식에서는 막돌기단이 5개소(55.6%)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다듬돌기단 2개소(22.2%), 토단 2개소(22.2%)로 나타났다. 자연 지형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전통 누정 건축의 특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주초석은 원형과 방형이 혼용된 사례가 1개소(11.1%)였고, 나머지는 원형 또는 막돌 주초석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기둥은 대부분 원형 기둥을 사용하고 있었고, 금강정만 원형과 방형 기둥을 혼합하였다. 공포는 이익공이 6개소(66.7%)로 가장 많았고, 초익공은 3개소(33.3%)이다. 비교적 장중한 누각 구조가 영월 누정에서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지붕은 팔작기와지붕이 8개소(88.9%)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사모지붕은 배견정 1개소(11.1%)에서만 확인되었다. 여기에 겹쳐마 구조는 7개소(77.8%)로 나타나 영월 누정이 위계성과 장엄성을 중시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장식 및 내부구성이다. 마루 형식은 전체 누정에서 모두 우물마루를 사용하고 있어 전통 누정 건축의 보편적 특징이 잘 유지되고 있었다. 천장 구조에서는 연등천장과 제형대공을 함께 사용한 사례가 6개소(66.7%)로 가장 많았고, 연등천장 단독 구조는 2개소(22.2%), 연등천장과 우물천장을 혼용한 사례는 1개소(11.1%)이다. 난간은 계자난간 5개소(55.6%)와 평난간 4개소(44.4%)로 유사한 비율을 보이는데 누각과 정자의 기능적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단청은 화려한 단청이 6개소(66.7%)로 가장 많았고, 중간 수준의 단청은 1개소(11.1%), 간결한 표현의 단청은 1개소(11.1%), 백색 단청은 1개소(11.1%)로 분석되었다. 포벽의 경우 1소로가 5개소(55.6%)로 가장 많았고, 2~4소로의 형태는 4개소(44.4%)로 나타났다. 이동 동선과 공간 위계에 따라 장식 요소가 차별적으로 적용되었음을 보여준다.

넷째, 기능 및 공간 활용이다. 자연경관 감상 기능은 전체 누정 9개소 모두에서 공통으로 나타

났다(100%). 이로써 누정 건축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 자연 조망과 풍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강학 및 수양 기능은 자규루, 풍화루, 청허루, 빙허루, 관란정 등 5개소(55.6%)에서 확인되었고, 문학·창작 기능은 자규루, 청허루, 빙허루 등 3개소(33.3%)에서 두드러졌다. 이 중 배견루와 풍화루는 향교 및 서원과 연계된 위계 공간으로 활용되어 상징적 관문 기능을 수행하였고(22.2%), 관란정과 배견정은 충절의 정신과 추모의 의미가 강조된 공간으로 분석되었다.

4. 디지털 기반 문화콘텐츠 활용 방안

4.1 문화유산 보존과 디지털 기록화

영월 누정의 지속 가능한 보존과 활용을 위해서는 문화유산 지정 확대와 함께 체계적인 디지털 기록화가 필요하다. 현재 일부 누정은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 누정은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따라서 누정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역사적·학술적·경관적 가치를 평가하고, 보존 가치가 높은 누정의 지정 확대와 관리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문화유산의 보존과 접근성을 동시에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3D 스캔, 드론 촬영, 디지털 실측 등을 실시하여 누정의 건축구조와 주변 경관을 기록하고, 누정별 메타데이터를 구축함으로써 학술연구와 보수·복원의 기초자료로 사용한다. 이러한 디지털 아카이빙은 문화유산의 장기적 보존뿐만 아니라 온라인 전시와 교육 콘텐츠 개발에도 이용할 수 있다 [11].

4.2 스토리텔링 및 실감형 문화콘텐츠 개발

영월 누정은 건축적 의미 외에도 단종 관련 역사, 유교적 가치, 선비문화, 자연경관 등 다양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 스토리텔링 기반 문화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다. 특히 누정별 역사적 배경과 입지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콘텐츠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자규루, 관란정, 배견루, 배견정 등 단종과 관련된 누정은 단종의 삶과 충의 정신을 중심으로 역사문화 탐방 콘텐츠를 구성하고, 금강정과 요선정 등 자연경관과 연계된 누정은 선비들의 사색과 풍류를 주제로 한 콘텐츠를 개발한다.

또한 AR·VR·XR 등 실감형 기술을 이용하여 누정의 역사적 공간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한다. 예를 들어 자규루에서는 AR로 단종과 「자규시」 관련 역사적 장면을 재현하고, VR을 통해 조선시대 누정의 풍류와 생활문화를 체험하도록 구성한다. 소실·훼손된 누정은 디지털 복원 및 가상공간을 통해 재현하며, 자연의 소리, 시 낭송, 국악 및 AI 음성해설 등을 결합한다면 이용자의 몰입도를 높일 수 있다 [12].

4.3 지역문화관광 및 프로그램 연계

영월 누정의 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개별 누정의 보존과 활용을 넘어 지역의 관광자원 및 문화 프로그램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 누정의 역사와 인문학적 가치를 인식하여 답사, 현장 글 쓰기, 문화예술교육 등 참여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 문화예술인과 연계한 인문학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13].

또한, 문화유산 야행, 국가유산 활용사업, 도시재생사업 등 기존 정부 지원사업에 영월 누정을 포함시켜 개별 누정을 연결한 탐방 동선을 마련한다. 특히 장릉·청령포 등 주요 지역문화유산과 연계한 관광코스를 개발하고, QR 기반 해설, 모바일 문화유산 플랫폼, 위치 기반 스마트관광, 디지털 스탬프 투어 등을 도입한다면 방문객의 접근성과 참여도를 높일 수 있다.

이를 위해 영월문화원, 영월문화관광재단, 영월문화도시센터, 영월군도시재생지원센터, 영월군농촌활성화지원센터, 강원민예총 영월지부 등 지역의 문화·관광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누정을 매개로 공동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해야 한다. 이를 통해 영월 누정을 지역의 역사문화자원과 관광자원을 연결하는 거점으로 삼아 지역주민의 참여와 문화관광 활성화를 도모한다.

5. 결론

본 연구는 영월 누정 9개소를 대상으로 역사적 의미와 건축 공간적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 기반 문화콘텐츠 활용 방안을 모색하였다. 분석 결과, 영월 누정은 자연경관과의 조화를 중시하는 개방형 구조를 중심으로, 팔작지붕, 원형기둥, 우물마루, 연등천장 등 전통적 건축요소가 잘 남아 있었다. 또한 누정별 입지와 조성 배경에 따라 단종 관련 역사적 추모, 유교적 수양, 자연 감상과 풍류 등 다양한 문화적 의미와 기능을 배포하고 있었다.

영월 누정의 지속 가능한 보존과 활용을 위해서는 문화유산 지정 확대와 함께 디지털 아카이빙을 통한 체계적인 기록·관리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단종과 선비문화, 자연경관 등 누정이 지닌 역사·문화적 특성을 이용하여 스토리텔링 기반 콘텐츠와 AR·VR·XR 등 실감형 콘텐츠를 개발하고, 지역 관광자원 및 문화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결국 영월 누정은 전통문화유산의 보존을 넘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는 현대적 문화자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앞으로는 디지털 기록화와 문화콘텐츠 개발의 구체적인 적용 및 효과를 검증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s

- [1] Yeongwol Cultural Center, *A Survey on Pavilions and Loyalty-Filial Piety Monuments in the Yeongwol Region*, Yeongwol Cultural Center, 2003.
- [2] K. B. Lee, *Studies on the History of Silla Thought*, Iljogak, 1986.
- [3] H. J. Jeong, *Baekje Royal Capital II: Symbolism of East Asian Capital Landscapes*,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2020.
- [4] B. Y. Kim, "Sega, King Yejong 8," in *Goryeosa*, vol. 13, 1451.
- [5] B. Y. Kim, "Sega, King Uijong 11," in *Goryeosa*, vol. 18, 1451.
- [6] B. Y. Kim, "Sega, King Gongmin 22," in *Goryeosa*, vol. 44, 1451.
- [7] H. S. Lee, *Natural Landscape and Pavilion Architecture*, Jeonmang Publishing, 2006.
- [8] S. M. Lee, "A Study on the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of Pavilion in Chungcheongbuk-do," Master's thesis, Department of Construction Engineering, Semyung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2019. [Online]. Available: <https://www.riss.kr/link?id=T15153415>
- [9] G. T. Kim, *Korean Traditional Architecture Vol. 3: Pavilion Architectur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1996.
- [10] K. H. Jang, *Traditional Architecture of Korea*, Munye Publishing, 1992.
- [11] D. H. Yoo, "Current Situation and Prospect of Digital Heritage Study," *The Journal of Culture Contents*, no. 3, pp. 95-121, Dec. 2013.
- [12] K. H. Lee, S. K. Kwon, C. K. Shin, and J. S. Jeong, "A Study of Storytelling Strategies that Utilize Regional Cultural Heritage in Modern and Contemporary Eras," *The Studies of Korean Literature*, no. 84, pp. 33-69, Oct. 2024, doi: 10.20864/skl.2024.10.84.33.
- [13] M. S. Kim, "A Study on the Program Development in the Academy of Humanities and the Culture and Arts Education by Linking between Lifelong Education and Local Cultural Heritage," *Studies in Urban Humanities*, vol. 6, no. 2, pp. 113-149, Oct. 2014.